한나라 박근혜·이명박 '후보검증' 쟁점과 전망

朴 "검증 본격화땐 지지율 변화" 李 "네거티브 공세 되레 毒될 것"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라이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향해 '검증카드'를 꺼내 들면서 두 주자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박 전 대표 측은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 등 정책공약 검증을 하자는 것이지 '네거티브'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전략상 한발 빼는 모양새지만 '검증'을 쟁점화 해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검증 쟁점 뭘까**=일단 두 주자 중 상대적으로 음해성 루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측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이다. 시중에 그를 둘러싼 50가지 의혹에 관한 '이명박 X-파일'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정수장학회'-'군면제 의혹' 검증 쟁점

그중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은 대개 10개 안팎으로, 이 전 시장 본인의 군 면제 의혹이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다. 이 전 시장 측은 병무청 병적기록부까지 제시하며 "1963년 8월 자원 입대했으나 훈련소 내 신체검사와 잇단 재검사에서 질병(기관지확장증)이 발견돼 면제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아들의 군 문제도 단골메뉴다. 일부 악의적 네티즌들이 '이 전 시장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설을 퍼뜨리고 있으나 이 전 시장 측은 "아들은 하나이며, 그 외아들은 멀쩡하게 군대를 갔다왔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출생지 문제. 이 전 시장의 출생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북 포항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大阪)라는 것이 요지로, 이 전 시장 측은 "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 등을 통해 출생지가 오사카 임을 수차례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막연한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이 전 시장 캠프에선 "부동산투기를 한 적이 없고, 재산형성 과정도 투명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박 전 대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직접적 관계는 없어졌지만 그동안 여권에서 정수장학회 설립과정을 둘러싸고 '강탈'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해 온 만큼 검증과정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79년 청와대에서 나와 97년 한나라당 고문으로 정계에 진출하기 전까지 베일에 가려진 사생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논란 확산될까**=두 주자간에 즉각적인 전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박 전 대표측도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의 당위성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3~4월께 '본격 폭로전' 전망도

이 전 시장측은 박 전 대표측의 공세에 대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맞대응 할 경우 오히려 논란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박 전 대표측의 공세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2월 초 발족될 경선준비위의 활동 상황을 지켜 본 뒤 실질적인 폭로전이나 검증 논란은 3, 4월께나 일게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대통령 퇴임후 사저 기공식

1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생가 뒷편에서 열린 노 대통령 사저 기공식에서 친형 건평씨(맨 오른쪽)와 지역 인사, 주민대표 등이 함께 첫 삽질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인 노 대통령의 거처는 건축 면적 933㎡에 지하·지상 각 1층 규모다. /연합뉴스

국내외 일정 강행 피로 누적탓

노대통령 아세안 만찬 불참 왜?

"아베와 신경전 때문" 관측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세부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저녁 아세안+3 정상 만찬과 15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오찬에 잇따라 불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순방 중 오·만찬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아세안+3 정상회의 만찬 불참 이유에 대해 "계속 이어진 일정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최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출국 전에 가벼운 감기 증세를 보였는데, 현지에 와서 쉬지를 못하고 회담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정상만찬에 앞서 이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팽팽한 이견으로 신경전을 벌이느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증폭됐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6자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과 납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한일 양자회담이 아니라 3자 회담이기 때문에 주로 정해진 의제에 따라 회의가 진행돼 신경전이 야기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재정 통일 유신 지지 논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972년 11월 10일에 10월유신을 지지하는 결의문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인철 한신대 교수는 15일 출간한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도서출판 중심)에서 당시 이재정 신부가 '서울 교회와 경찰 협의회'의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10월유신과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원'이라는 10월유신 지지 결의문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 결의문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결의문을 문서로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일도 없다"고 말한 뒤 "1974년부터 김상근 목사, 오충일 목사, 함세웅 신부 등과 같이 본격적으로 10월유신에 대해 반대운동을 했다"면서 "(결의문 지지명단에 들어간 것은) 성공회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명단을 넘긴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인턴보좌관 유보할 듯

"시민정서 부합 안돼… 내달 예산 삭감 결의"

지난해 말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다가 비난을 받았던 광주시의회의 일부에서 이를 '자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진선기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5일 "인턴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은 많으나 아직 시민 정서와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돼 관련 예산 자진삭감 결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각 의원실에 돌리는 한편 의원들의 찬반 양론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체로 결의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턴보좌관제 도입은 자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25일 열릴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다음달 5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물론 이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상관없이 광주시 집행부 측에서도 오는 5월 열릴 추경안 심의 때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삭감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나 광주시의회가 미리 관련 예산 삭감을 결의한다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광주시의회와 집행부 측의 갈등도 일단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본 학원 출신 2007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광주지역 17명중 15명합격(1차합격자 기준)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 입니다.
곽내영고시학원 겨울방학특강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
새단장 최적의 학습 환경구축
개인 사물함, 스터디룸, 정독서실, 개인PC룸, 최첨단 영상강의실 완비
단체 10명이상 수강등록시 할인혜택
인터넷 동영상강의 www.edu view.net 에듀뷰넷
개설강좌 곽내영교육학 개강 1월 6일(토) 위재권 초등교육 개강 1월 3일(수) 임미선 유아교육 개강 1월 12일(금) 임대성 전공수학 개강 1월 8일(월) 최뿔핵 전공국어 개강 1월 11일(목) 강치욱 전공생물·장영민 전공물리 김성의 전공미술·김형수 일반사회 개강 1월 첫째주 해당요일
곽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062)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산안 사거리)

- 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민법및특별법, 부동산공법, 중개법령및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2007년 1월3일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시설개론, 회계원리, 주택관계법규, 주택관리실무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2007년 1월 중순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취득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통신설비	1. 디지털전자회로 2. 정보통신기기 3. 정보전송개론 4. 정보통신시스템 5. 전자계산기일반 및 설비기준 취득자격증 :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훈련수강신청서작성 ▶훈련기관에 제출 ▶수강
시내버스 노선 ■도청·외환은행: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전남여고 앞:3, 11, 27, 38, 55, 111, 118 ■예술의 거리입구: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 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內)
☎ 224-4560, 232-1088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물짝수 주야간반 수시 접수중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30000여명 모집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교정직 특채 2007년 3월~5월중 실시 8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시생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한빛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지방직대비 공무원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교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기술직
올교정직특채 800여명 2007년 상반기
=한빛슈퍼파워팀= 올문제풀이 한빛이 하면 多걸린다!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1월 15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234-0234

중국대학 입학은 리틀차이나와 함께-
2007년 中國 명문대학 제6기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입학
북경어언대 / 북경외국어대 / 북경사범대 / 상해사범대 / 상해외국어대 / 화동사범대 / 상해재경대
– 2002년 제 1기 모집 시작으로 총 59명 합격
– 6개월 입학준비반 수료생 100% 합격신화
2008년 5월 본고사 대비
북경대 / 청화대 / 복단대 / 교통대 / 인민대
– 2학기는 한국에서, 1학기는 중국에서 입학준비
– 중국어, 영어, 수학, 역사, 개황 등 입시 과목 전문선생님 강의
2007년 9월 중의대 입학
상해, 북경, 천진, 장춘, 광주 중의대
– HSK 5~6급 취득 : 중의대 입학 (5년과정+1년실습과정 : 중의사자격 취득)
– HSK 3급 : 중의대 예과반 입학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1월 20일(토) 오후2시
설명회 참가시 사전 예약바랍니다
중국어 사관학교 리틀차이나 中国語 学院
www.littlechina.co.kr
금남로 4가 하나로통신 맞은편 ☎233-9582